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용자 의존 미 소비 대출자들 회복 중이다’
- CNN Business: 미국인들 소비 줄이지만 항공, 호텔 등에 여전히 지출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꺾춤...뉴욕 학교 봄방학과 겹쳐

#### [미국 금융]

- WSJ: 미국 기업들, 자사주 매입 늘린다
- Bloomberg: 월가, 연준 금리 인하 확인...실업수당 보고서 발표 이후

#### [뉴욕시]

- WSJ: 4월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사상 최고치로 상승
- Bloomberg: 뉴욕 MTA, 교통 시스템 개선에 2백50억불 필요

#### [미 에너지]

- Yahoo Finance: 트럼프, 오일 제조업체에 “바이든의 전기차, LNG 정책 바꾸겠다”

#### [미중 경제]

- Bloomberg: ‘미국은 선박 부족 해결 해결 위해 한국 등 동맹국 지원 필요’
- Bloomberg: 중국, ‘4월 수출 성장세’로 경제 활력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Yahoo Finance: 에어비앤비 주가 하락 ... 경기 둔화 우려
- Bloomberg: 화웨이 조치 이후에도 ‘인텔’ 향한 투자심리 강하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Lenders Are Seeing a Bottom for Consumers

##### ‘용자 의존 미 소비 대출자들 회복 중이다’

- 작년 말 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자동차 용자 대출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연체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바로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연체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 관련 조사 Jefferies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신용카드 용자 연체 비율이 올해 2월에서 3월로 가면서 0.18% 감소해 평상시 계절 추세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 여전히 대출금과 여러가지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 WSJ 기사

**CNN Business: Americans are shopping less but they're still spending on flights, hotels and Disneyland****미국인들 소비 줄이지만 항공, 호텔 등에 여전히 지출**

- 미국인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여행 등에 대해서는 돈을 쓰고 있다. 디즈니랜드 및 놀이 관련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1% 올랐다. 팬데믹 이동제한 조치 이후에 높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과 홍콩의 디즈니랜드 리조트 매출이 올랐다는 것.
- 델타 항공사는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올 봄과 여름 여행 시즌에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올 여름에 승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리어트 호텔 인터내셔널도 작년과 비교해 룸 당 글로벌 매출이 4.2% 상승했다고 말했다.

##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Jump in Week When New York Schools Had a Break****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경총...뉴욕 학교 봄방학과 겹쳐**

- 지난주에 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작년 8월 이래 가장 크게 뛰었다. 뉴욕시 공립학교 방학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다. 5월 신규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2만2천개 늘어난 23만1천개로 상승했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지난주까지 과거 3개월간의 첫 신규 실업청구 건수는 20만에서 22만2천 건 범위에 들어있다. 특히 뉴욕에서 경총 뛰었고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일리노이에서 상승했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Buybacks Are Back: Corporate America Is on a Spending Spree****미국 기업들, 자사주 매입 늘린다**

- 올해 1분기에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있어 주식 시장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 올해 1분기 실적을 보고한 S&P 500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에 총 1천8백12억 규모의 자사주를 구매했다고 Birinyi Associates는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상승한 것이다.

- 특히 빅 테크 기업들이 주도했는데 메타 플랫폼이 1분기에 1백45억불을 매입, 작년보다 50억불 늘었으며 넷플릭스, 엔비디아, 웰스 파고 등도 자사 주 매입을 늘렸다.

WSJ 기사

### **Bloomberg: Wall Street Validates Fed Bets After Jobless Data** 월가, 연준 금리 인하 확인...실업수당 보고서 발표 이후

- 월가는 오늘 실업수당 보고서 발표의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인해,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접하게 됐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난해 8월 이래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주가는 상승 중이며 S&P 500은 지수가 5,190 언저리에서 거래 중이다. 월가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완화하겠다는 베팅을 소폭 늘렸다. 단기 만기 국채의 경우 다른 국채들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9월까지 연준 조치를 기다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 **WSJ: Manhattan Apartment Rents Climb to Highest on Record for April** 4월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사상 최고치로 상승

- 지난 4월,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가오는 여름 시즌에 또 다른 기록이 갱신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감정평가사 Miller Samuel Inc.와 중개업체 Douglas Elliman Real Estate에 따르면, 신규 임대 계약은 평균 4천2백50달러에 체결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9달러 상승한 것.
- 임대료는 지난 4개월 중 3개월 동안 상승했다. 주택 소유주가 가격을 올리고, 공실이 역대 최저치에 가까워지면서 예비 세입자들은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파트를 구하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 **Bloomberg: NY MTA Needs \$25 Billion More for Transit System Upgrades** 뉴욕 MTA, 교통 시스템 개선에 2백50억불 필요

- 미국에서 가장 큰 교통공사인 뉴욕 MTA가 지하철 서비스와 날씨에 대한 대응 구축 시스템을 위한 향후 인프라 회복에 2백50억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뉴욕 감사원은 밝혔다.
- 뉴욕 MTA는 뉴욕시 지하철, 버스 그리고 2개의 통근 기차 시스템을 관할 하는데 오는 10월 1일까지 2025~2029년 자본 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 [미 에너지]

**Yahoo Finance: Trump vows to target EVs, LNG exports in meeting with oil CEOs –report****트럼프, 오일 제조업체에 “바이든의 전기차, LNG 정책 바꾸겠다”**

- 오는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트럼프는 미 오일 제조업체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관련 기준과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 즉, 바이든의 전기차 개발을 위한 매출 기준을 중단하고 새로운 LNG 수출 허가를 동결하는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 트럼프는 동시에 이들에게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10억불 선거 지원금을 요청했다. 참석 CEO 회사들은 쉘브론, 엑손, 컨티넨탈 등이다.

Yahoo Finance 기사

## [미중 경제]

**Bloomberg 오피니언: US Should Let Allies Help With Ship Shortage****‘미국은 선박 부족 해결 해결 위해 한국 등 동맹국 지원 필요’**

-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대응은 동맹국을 끌어들이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고, 국내 로비에 매달렸을 때는 가장 생산적이지 못했다. 이는 중국 조선사들에 대한 정치적으로 무역 관련 조사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명심해야 할 점이다.
- 사실 미국의 상업용 조선업은 중국의 등장 이전부터 경쟁력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조선업 분야 부흥을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 국방부는 이미 일본에 있는 미국 군함 수리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나아가 일본과 한국의 조선소가 일부 군함 모듈을 공동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침몰한 미국 유조선과 보급선을 대체하기 위해 전시에 민간 생산을 신속하게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미국은 일본과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계속 장려해야 한다. 미국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추진이나 무인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s Exports Return to Growth in April, Boosting Economy****중국, '4월 수출 성장세'로 경제 활력**

- 중국의 4월 수출이 예상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수입은 급증했다.
- 목요일 중국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달러 기준으로 1.5% 증가하여 3월의 감소세를 반전시켰고, 동시에 수입은 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 달 동안 7백24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발생했다.
- 이러한 수치는 글로벌 수요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국내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Yahoo Finance: Airbnb slumps as gloomy forecast fans slowdown fears****에어비앤비 주가 하락 ... 경기 둔화 우려**

- 목요일 개장 전 에어비앤비 주가가 8% 이상 폭락했다. 2분기 실적 부진으로 휴가용 임대업체의 성장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분기 수익 전망이 어두워진 것.
- 에어비앤비의 이번 분기 수익 전망이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은, 1분기에 부활절 연휴가 있었다는 점과 환율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 또한 예약 객실 숙박일수 증가율은 전 분기와 비교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 평균 숙박 요금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이라 전망됐다.

## Yahoo Finance 기사

**Bloomberg: Intel's Battered Bulls Find Hopes Dashed Again After Huawei Ban****화웨이 조치 이후에도 '인텔' 향한 투자심리 강하다**

-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칩 수출을 금지하면서, 인텔은 수년간 이어온 사업 전환 노력이 걸림돌에 부딪혔다. 그러나 여전히 인텔의 수익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
- The Futurum Group의 CEO Daniel Newman는 “인텔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나는 그 꾸준함에 감탄하고 있다. 인텔에

대해서는 적어도 3~5년은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 Melius Research의 애널리스트 Ben Reitzes도 인텔이 결국 AI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주식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현재 인텔의 예상 수익은 21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10년 평균인 15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Bloomberg 기사

## 보스톤 연은 총재 "현재 고금리 예상보다 오래 유지해야 할 듯"

콜린스 "인플레이션 목표 2% 경로 유지하려면 경제성장 둔화 필요"  
연준 쿡 이사 "비은행 대출 증가, 금융시스템 타격 없어"

수전 콜린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수요를 억제하고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해 20년 만의 최고 수준인 현재 금리를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로 가는 지속 가능한 경로를 유지하려면 경제성장 둔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비은행 대출이 증가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